



이탈리아 육류 섭취 줄이기 논쟁

이탈리아의 신임 생태전환부(Ministero della Transizione Ecologica) 장관 로베르토 친골라니(Roberto Cingolani)는 최근 한 담화에서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1kg의 동물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식물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보다 여섯 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20%는 대규모 축산업에서 발생함을

예로 들었다. 친골라니 장관은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면 공중 보건이 개선되고 수자원 낭비를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인간과 환경 모두에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다.

친골라니는 또한 12일 한 생태적 전환 관련 행사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생태적 전환은 환경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협상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생태적 전환 실현 의지를 피력했다.





을 2월 출범한 마리오 Дра기(Mario Draghi) 정부는 친환경 정부를 표방하며,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혔다. Дра기 정부는 이탈리아가 204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국가 복구 및 회복력 계획(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세우고 실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Дра기 총리는 전 이탈리아 기술연구소장이자 물리학자인 친골라니를 생태전환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탈리아는 EU로부터 유럽복구계획(Next Generation EU)을 명목으로 회원

국 중 가장 큰 금액인 2천90억 유로(약 280 조원)를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 예산을 운용하는 주요 부처가 생태전환부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 언론은 친골라니에게 ‘슈퍼 총리(Super minister)’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친골라니 장관의 발언에 이탈리아 축산업계는 반기를 들었다. 이탈리아 육류산업 관계자들은 친골라니 장관과 즉각적인 회담을 요청했고, ‘지속가능한 육류협회(Carni sostenibili)’는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여향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며, “이탈리아 축산업은 세계 평균치와 비교해 25% 가량 적은 물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육가공품 생산자들 역시 “이탈리아는 유럽 내 육류 소비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로,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36.8kg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육류협회는 또한, “육류 생산의 사회적, 영양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육류 산업은 약 400억 유로 규모로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명성이 높은 지중해 음식에 육류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육류 섭취 관련이슈는 EU의 새로운 식량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Fork)’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전략은 EU그린딜계획의 핵심으로, 식량시스템을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장려하는 것은 해당 전략의 중요요소이다.



Key Point

이탈리아 새 정부는 친환경 정부를 표방하고 생태적 전환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육류 섭취를 줄이는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육류 섭취를 줄이는 트렌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부, 버섯, 콩 등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단백질원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식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음식 재료이므로, 국내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겨냥한 제품을 개발해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